또 가정불화 참극

광산서 불륜의심 30대, 부인·아들·딸 살해 뒤 목 매

'외도' 부인·아들 살해, 빚 갈등 일가족 자살 등 잇따라

"사회적 관심·대책 마련 서둘러야"

부부간 무너진 신뢰가 끔찍한 참극을 빚었다. 불륜을 의심하던 3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L아파트에 사는 양모(38)씨의 집에서 양씨와 부인 김모(38)씨·큰아들(16)·막내딸(11)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처남(4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다용도실에서 목을 맨 채로, 부인과 두 자녀는 목이 졸려 숨진 채 거실과 작은 방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부인 김씨 등 3명의 입에서 거품이 발견된 점과 이렇다할 반항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양씨가 수면제나 독극물을 먹인 뒤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종이컵 3개 등 컵 8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처남은 경찰에서 "지난달 29일 여동생과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돼 집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시신의 부패 상태와 두 자녀의 등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망시기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오전 7시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양씨의 차에서는 유서 2장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이젠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살아갈 의지조차 없다. 세상의 여자들이여 더 이상 남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가족 동반자살. 타살 후 자살. 조○○ 살해 후 자살. 혼자 자살. 살인마가 되어서 미쳐버릴까"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적힌 조씨와 양씨의 부인은 5년 전 장성의 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유족 측은 불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살인·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던 양씨가 처자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같이 올들어 광주·전남에서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2일 해남군 해남읍에서 김모(40)씨 부부가 평소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아들(9)과 함께 집에서 동반자살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에는 최모(29)씨가 광산구 비아동 자신의 집에서 시댁 험담과 외도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부인(30)과 아들(4)을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으나 붙잡혔다.

광주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상대 배우자가 죽어야만 끝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정폭력 그만" (사)광주여성의전화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0일)을 맞아 1일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주운전 했다가 '직권면직'

광주시 운전원 중징계 징계 강화 후 첫 사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광주시 운전원(기능 10급)이 직권면직 됐다.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화 이후 첫 사례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개정된 '광주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원 A씨와 기술직 7급 직원인 B씨에 대해서 각각 직권면직과 견책 결정을 내렸다.

과거에는 표창 실적 등을 통해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강화된 새 규칙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금지해 이들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A씨는 단기간 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 결정돼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공직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3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경처분을 없애도록 한 뒤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 규칙이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다"며 "특히 운전원의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되면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0대男, 내연녀 손녀 성폭행

70대 내연녀의 손녀를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1일 정모(4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10월 초께 순천시 장천동 내연녀 김모(여·73)씨의 모 주점 안방에서 김씨의 손녀(13)를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가정폭력 주 원인은 '외도' '돈'

광주여성의전화 올 상담 885건 중 절반이 부부싸움

외도와 경제적 갈등이 부부간의 폭력을 부르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자주 접한 자녀의 경우 대를 물려가며 부부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는 885건으로, 이 중 가정폭력이 459건(51.8%)을 차지했다. 외도와 경제문제로 인한 부부싸움 상담건수도 172건이나 됐다.

특히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상담건수는 10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196건)의 55.1%에 육박했다. 외도와 경제문제 등 부부간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운데 신체적 폭력은 434건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의처증과 폭언 등 정서적 학대 20건(4.35%) ▲생활비 주지않는 등 경제적 학대 3건(0.65%)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213명(46.4%)으로 전체 가정폭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부부폭력의 경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배우자에게 당하는 것인 만큼 심리적 충격이 심각하며, 우울증 또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 사는 K(40)씨가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폭력의 '대물림'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자녀의 경우 사소한 문제에도 극도의 불안감과 흥분을 나타내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어렵고, 성인이 된 후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가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 폭력은 '남의 집의 일이고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돈선거' 농협 이사 3명 당선무효 위기

목포지원 직위상실형 선고

임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무안군 모 농협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해 이사 당선자 절반이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1일 농협 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63)씨 등 또 다른 후보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장씨와 정씨 등 당선자 3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농협 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분돼 전체 이사 당선자 6명 가운데 절반이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농협 대의원 권모(여·42)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정모(60)씨 등 또 다른 대의원 5명에 대해서는 7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5명 가운데 돈 전달책으로 알려진 김모(55)씨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지난 2월 치러진 무안군 모 농협 이사선거 과정에서 수만~수십만원의 현금과 음식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박연수 前진도군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일 인사청탁과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박연수(61) 전 진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돈을 주고 '홍주 체험관' 공사를 따낸 문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6년부터 공사수주 및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군수는 지난 10일 군수직을 사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음주단속 당하느니…" 바다에 풍덩

쌍나팔

○…만취한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일부러 바다에 빠졌다가 119구조대에 구조되는 등 한바탕 소동.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최모(30)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55분께 목포시 상동 해양항만청 앞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자 측정을 거부하면서 차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고 100m가량을 도주하다 바다에 투신.

○…최씨는 바다에 빠진 지 5분 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담당 경찰은 "얼마나 취했던지 찬물에 빠졌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해 조사가 힘들 지경이었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